

어청도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발판 마련

군산시, 내년 1월부터 '어청도 여객선 운임비 반값 할인 사업' 확대 운영

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어청도 여객선 운임비 반값 할인 사업을 연중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전북도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어청도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장자도·말도를 운항하게 될 고군산카훼리호의 본격적인 시동과 함께 획기적인 섬 관광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어청도 여객선 운임비 반값 할인 사업'을 연중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어청도 여객선 운임 비용 할인의 대상자를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뿐 아니라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군산시로 둔 출생인으로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방침이며,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이야기 길 조성사업 공모'에서 어청도가 선정되면서 꾸러질 어청도 등대 전횡장군 설화 봉수대 등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코스의 개발을 통해 감성이 살아있는 명품 섬 어청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고군산군도연결도로 전방개봉에 맞춰 관광형 신규여객선으로 신조된 고군산카훼리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기존 '군산~말도' 항로에서 '장자도~말도'로 항로를

조정해 운항시간(120분→145분)의 단축과 운임 비용(15,600원→6,000원)의 인하로 편리하게 관광객들이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김형철 경제항만국장은 "어청도는 최근 tvn의 인기프로그램인 섬총사(강호동 김희선 출연)의 촬영지로 이

용되어 그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전국에 알린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고군산연결도로의 완전개통과 말도~방축도 인도교 개설 추진, 관리도 캠퍼장 조성 등은 앞으로 고군산군도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군산군도의 명품 섬 조성이 군산시가 간직한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연계되어 가장 아름다운 체류형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대학교 캠퍼스 사진 공모전 시상식

대상에 김태종 학생의 '아이들과 함께'

군산대학교는 28일 군산대학교 총장 집견실에서 '개교 70주년 기념 캠퍼스 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이 공모전은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군산대학교의 역동적인 캠퍼스 모습이 담긴 사진작품을 공모해 70년 전통을 돌아보는 한편, 신선하고 아름다운 대학 모습이 담긴 사진 콘텐츠를 발굴하여 군산대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독창성, 참신성, 실용성, 완성도 및 대학홍보자료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1차 50편을 선별하였고, 구성원 대상의 스티커 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시상작을 엄선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김태종 씨(정보보호공학전공)가 '아이들과 함께'가, 금상에는 서중환 씨(국어국문학

과)의 '좋은 날과 이현지 씨(기계공학전공)가 '별남의 기억'이 선정되었다. 은상으로는 권귀홍 씨(대학원 행정실)의 '홍릉호', 박성수 씨(기계에너지전공)의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로군', 황건웅 씨(경영학부)의 '소서(小暑)'가 선정되었다. 이의 동상으로는 유진희 씨(공과대학 행정실)의 '겨울2008' 등 5점이 선정되었다.

대상작인 '아이들과 함께'에 대해 김태종 학생은 "기 하계 학생회 봉사단 활동 중 단원들과 몽골 아이들이 즐겁게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원광대 창업지원단, 창업장학금 4000만원 지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창업지원단은 창업 진화적 학제구축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업 장학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창업장학금은 대학생 창업 강좌 수강 일반인 실천창업 강좌 수료, 1학과 1기 창업활동 등 창업지원단과 관련된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점수를 통해 총 53명에게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특히 이번 장학금 지원은 창업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로 학내 창업 활성화 분위기 고취 및 창업지원단 관련 활동을 통한 창업 마일리지 적립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시행했으며, 교외 장학금 수혜 이력에도 포함되도록 했다.

장학금 최대 금액 수혜자로 선정된 국제통상학과 4학년 박석현 학생은 "창업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아이템의 시장성과 가능성, 문제점 등을 판단하고, 발표 역량도 향상됐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특별조정교부금 역대 최고액 확보

2016년 대비 2배인 22억원 증액된 43억원...지역현안 해결 물꼬 터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난해 2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는 43억원의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105.7%인 22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도 27억원, 2015년도 27억원, 2016년도 21억원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예산으로,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의 노력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익산시는 지난해 △농로포장(7억원) △마을안길·도로정비(4억원) △배수로 정비(2억원)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비(2억원) 등 총 2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도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15억원) ▲익산실내체육관 시설개선 공사(5억원)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5억원) ▲군도2호선 도로확포장사업(3억원) ▲배수로정비(2억원) 등 총 4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익산시 서부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실내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데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익산 실내체육관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시가지를 정비하는 등 내년으로 다가온 제99회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의 원활한 경기진행과 손님맞이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현율 시장은 "전북도와 도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최대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 및 도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시의 지역현안해결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새해부터 택시 콜비 무료

군산시가 새해 1월 1일부터 콜택시를 불러도 일명 '콜비'라 불리는 호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무료 콜 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무료 콜 제도의 시행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만,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택시'를 이용한 무료 콜 이용자가 급증하자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시에서는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번 무료 콜 시행에 브랜드택시인 개인택시 콜센터(새민금 콜)와 법인택시 콜센터(희망콜)가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콜센터를 통한 호출운행 실적은 연간 약 52만건으로 무료콜 시행을 통해 약 5억2천만원의 이용자 부담이 줄어들어 택시요금 절감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재 교통행정과장은 "지역 콜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며 "콜비 무료 혜택으로 택시 이용객이 더욱 증가하여 경기참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안심 귀갓길 위해 고보조명 추가 설치

군산시가 야간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소공원과 원룸 주변 골목길에 안전지킴이, 골목길 밝히기 사업으로 고보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해 7월, 군산여고, 영광여고 중앙여고 인근하늘길에 고보조명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미룡동 지곡동 오식도동 등의 원룸촌과 인근 소공원 8개소에 설치했다.

고보조명이 설치된 위치는 밤이 되면 인적이 뜰하고 으스스해져 야간 통행에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설치장소 선정부터 군산시와 군산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그래픽 디자인과 캘리그래피(디자인 서체)가 접목된 이미지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과 학생 등 지역주민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빛을 이용해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메시지를 도로상에 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해 자연스럽게 야간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근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